

# 차 례

## Contents

### 이슈와 진단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02
------------------------------	----

###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 산둥성, 《저탄소발전사업 방안》 발표	15
2. 상하이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16
3. 윈난성,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발표	18
4. 광저우시, 《IAB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5개년 행동계획》 발표	20

### 현대중국의 이해

평더화이와 린바오	22
	23

### 충남 속의 중국

나당전쟁의 최후 격전지, 서천 기벌포(伎伐浦)	35
	36

### 충남연구원 중국교류 현황 및 방향

41

###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28·29회 충청중국포럼	4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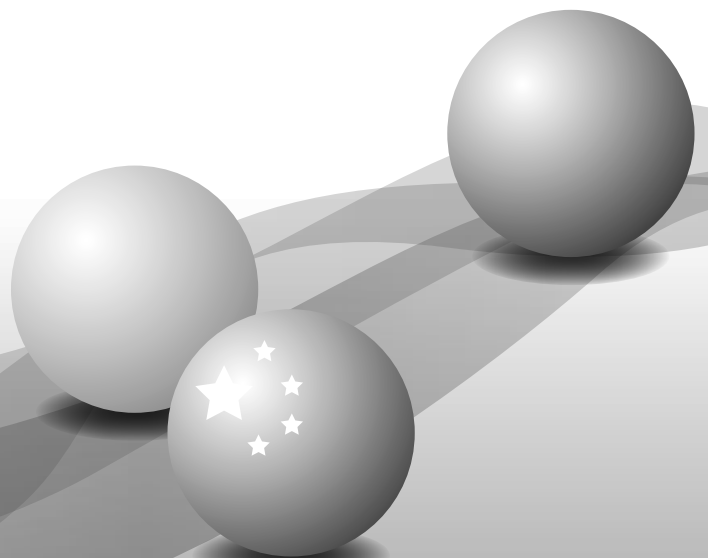
### 발간목록

54

이슈와  
진단

#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송영현·박경철



2018년 3월, 중국의 연중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로 통칭)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정부조직·인사개편안에 대한 의결, 시진핑 집권 1기 국정운영 평가와 2018년 주요 정책방향 제시가 있었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2018년 중국 양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충남이 중국 정책이슈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 양회 개요

-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집권 장기화와 관련된 헌법개정 및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알리는 조직·인사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인대와 정협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인대는 중국 중앙정부 권력이 가장 많이 집결된 곳으로 중국 헌법상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헌법 및 법률의 제·개정,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선출, 정부 고위 관료의 임명,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 수립과 해당 계획 집행에 관한 검사 및 비준, 국가예산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비준 등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정협은 공산당, 기타 당파,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국가의 주요방침이나 민중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문, 비평,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을 헌법전문에 삽입하고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 투표가 있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사 개편이 단행되었다. 〈국무원 기관개혁방안에 대한 결정(關於國務院機構改革方案的決定)〉을 통해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서 및 직능개편이 이뤄졌다. 기존 부처 중 6개 부처가 폐지되고 7개 부처가 신설되어 국무원 산하 중앙부처가 26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양적 국가경제성장의 전인차였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 일부는 타 부처로 이양되었다. 상기 조치들은 중국이 기존의 양적발전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중앙부처 부장 및 부(副)부장 등의 선임이 완료되었으며 1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전략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이 등용되었다.

- 이번 양회에서는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과 2018년 동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關於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가 있었다.

국무원은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의 주요 정부목표 및 정책, 임무 등을 발표하였다. 한편 국무원 산하기구로서 중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보완·구체화하여 올 한 해 추진될 정부정책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림 1> 2018년 양회에서 국가주석 선서를 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과 전인대 회의 전경  
자료: 중국 바이두([www.baidu.com](http://www.baidu.com)) 사진검색 자료(검색일: 2018년 4월 2일)

## II. 2018년 양회의 주요내용 및 특징

### 1. 헌법개정 및 조직·인사 개편

- 이번 양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이슈와 관련된 헌법 개정이었다. 중국 헌법 79조 3항 내 국가주석의 2기 연임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표결에 전체 2,964표 중 99.5%(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2기(1기 5년)를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 79조 3항의 내용 중 2기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

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순간이었다.

- 뿐만 아니라 헌법 서언부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하며 시진핑 주석의 권력위상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지도이념은 자신들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중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 역시 같은 형식으로 헌법문구에 포함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기반이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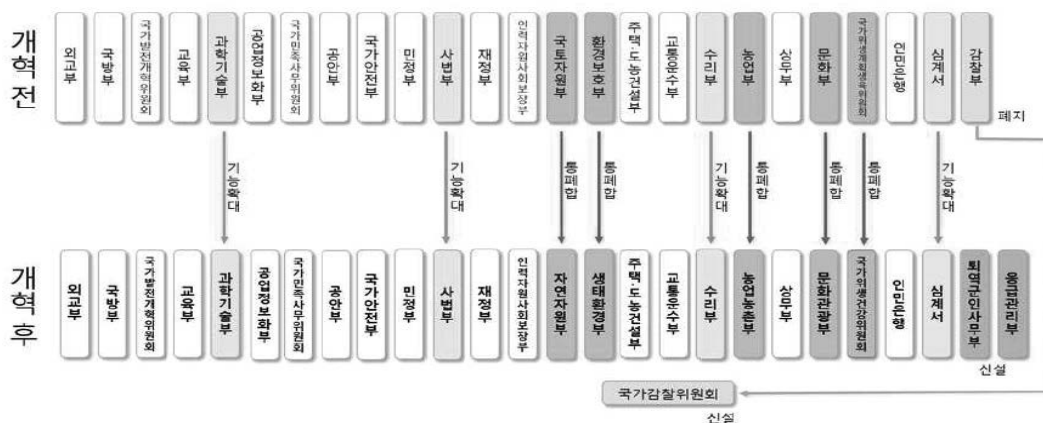
- 제 18기 전인대에서는 정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가진 부처를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기존 25개 중앙부처가 26개로 늘어났으며 6개 부처가 폐지되고 7개 부처가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하던 기후업무,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관리 업무, 수리부의 수질 오염 조사·관리 업무 등을 신설된 생태환경부가 맡아 일원화 추진체계 하에서 환경관리 업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같은 일련의 정책조치로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검찰부, 문화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국가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의 총괄부처였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이 상당 부문 축소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고유 업무였던 개발구역 책정, 기후변화 대응, 농업 투자, 반독점 시장 감시 등 업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강한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그림 2> 2018년 중국 주요 정부부처 조직개편 현황

자료: 이현태 외(2018),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12호. p. 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유기업개혁 성과 미진, 제조업 공급과잉 유발 등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비판 여론을 잠식시킴과 동시에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 최소화’로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표명한 조치로 판단된다.<sup>1)</sup>

● 한편,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핵심인사들의 인선이 이뤄졌다.

시진핑이 국가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임되었으며 공산당 상무위원이었던 왕치산(王岐山)이 국가부주석으로 임명되었다. 국무원 총리로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유임되었으며 한정(韓正), 순춘란(孫春蘭),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등 4인이 부총리로 선임되었다. 4인의 부총리들은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맞아 모두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웨이펑허(魏鳳和), 왕용(王勇), 왕이(王毅), 샤오제(肖捷), 자오커즈(趙克志) 등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밖에 26개 중앙 정부부처의 인사 역시 이뤄졌는데 15명의 부처장이 유임되었고 11명이 새로운 부처장으로 등용되었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중국최고인민감찰원장, 중국최고인민법원장 등 감사 및 사법기관장의 인사도 단행되었다.

●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인선은 시진핑 주석이 그간 추진해 온 국가정책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을 등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었던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7상8하의 인사관행<sup>2)</sup>을 깨며 국가부주석으로 등용되었다. 류허 부총리는 집권 1기에 시진핑 주석이 특히 강조하였던 ‘신창타이(新常態)’ 개념을 설계하였다.<sup>3)</sup>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빈곤퇴치 사업추진을 주로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진핑 시대 또 하나의 역점사업인 ‘공급측 개혁’사업을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시자원(習家軍)’이라 불리는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요직에 등용되며 시진핑 주석의 집권 1기 정책을 집권 2기에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 류허 부총리 겸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2018년 3월 13일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권한축소는 각 부처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시장활동 및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人民網(2018.3.13),「深化黨和國家機構改革是一場深刻變革」,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3/13/nw.D110000renmrb\\_20180313\\_1-06.htm](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3/13/nw.D110000renmrb_20180313_1-06.htm)(검색일 : 2018.4.8.))

2)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에는 ‘7상8하’라는 인사 관행이 존재한다. 중국 최고지도부를 인선할 때 나이가 67세 이하인 사람만이 임명 대상이며 68세 이상인 경우 임명이 불가하고 은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치산의 국가부주석 임명은 중국의 주요 인사 관행이었던 7상8하(七上八下) 원칙을 깨드리는 이례적인 행위였다.

3) 중고속 안정 성장시대를 맞이한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표 1> 2018년 양회 주요인사 인선현황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習近平)	국가민족사무 위원회주임	바터얼(巴特爾)	주택도농건설부장	왕멍후이(王蒙徽)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주임	허리핑(何立峰)	교통운수부장	리샤오핑(李小鵬)
전인대 상무 위원장	리잔수(栗戰書)	외교부장	왕이(王毅)	수리부장	어징핑(鄂竟平)
정협회의 주석	왕양(汪洋)	국방부장	웨이펑허(魏鳳和)	농업농촌부장	한창푸(韓長賦)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	교육부장	천바오성(陳寶生)	상무부장	중산(鍾山)
국무원 부총리	한정(韓正)	과학기술부장	왕즈강(王志剛)	문화관광부장	뤄슈강(雒樹剛)
	순춘란(孫春蘭)	공업정보화부장	먀오웨이(苗圩)	퇴역군인사무부장	쑤샤오청(孫紹騁)
	후춘화(胡春華)	공안부장	자오커즈(趙克志)	응급관리부장	왕위푸(王玉普)
	류허(劉鶴)	국가안전부장	천원칭(陳文清)	인민은행장	이강(易綱)
국무위원	웨이펑허(魏鳳和)	민정부장	황슈셴(黃樹賢)	심계서장	후쩌진(胡澤君)
	왕용(王勇)	사법부장	무정화(傅政華)	국가위생건강 위원회장	마샤오웨이(馬曉偉)
	왕이(王毅)	재정부장	류쿤(劉珉)	중국최고인민 감찰원장	장진(張軍)
	샤오제(肖捷)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장	장지난(張紀南)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양샤오두(楊曉渡)
	자오커즈(趙克志)	자연자원부장	루하오(陸昊)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周強)
국무원 비서장	샤오제(肖捷)	생태환경부장	리간제(李幹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치량(許其亮) 장여우샤(張又俠)

자료: 중국정부망 2018년 중국양회 특집 홈페이지(<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자료 참고 재작성

## 2.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국정운영평가

-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시진핑 주석 집권 1기(2013-17년)의 국정운영을 회고하  
며 경제력 증대, 혁신 주도형 발전, 개혁개방의 전면적 추진, 인민의 삶의 질 개선, 생태환경 호전  
등을 이뤄냈다고 총평하였다.  
이번 총평에서는 단순히 양적인 측면의 경제·사회성장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서의 발전 역시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2>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국정운영 성과 총평

성과	주요 내용
경제력 증대	○ 국내총생산액 증가 : 2012년 54조 위안→2017년 82.7조 위안 ○ 중국경제/세계경제 비중 증가 : 2012년 11.4%→2017년 15%(GDP 기준) ○ 국가재정수입 증가 : 2012년 11.7조 위안→2017년 17.3조 위안
혁신 주도형 발전	○ R&D투입액 증가 : 연평균 증가율 11% ○ 과학기술진보의 경제발전 기여도 증가 : 2012년 52.2%→2017년 57.5% ○ 양자통신 활용, 대형항공기 제조, 유인우주비행 등의 성과 도출 ○ 전자상거래 활성화, 공유경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산업분야의 혁신 창출
경제구조 변혁	○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 : 2012년 54.8%→2017년 58.8% ○ 첨단기술 제조업 성장률 : 연평균 증가율 11.7% ○ 도시화율 증가 : 2012년 52.6%→2017년 58.5%
개혁개방의 전면 추진	○ 전방위적 개혁성과 달성 : 정부의 행정 간소화 및 권한분산 수준 제고, 시장활력과 사회 창의성 증대 ○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대외무역 및 외자이용 수준 제고
인민의 삶의 질 지속개선	○ 빈곤인구의 감소(집권초기 대비 6,800여 만 명 감소) ○ 주민소득 증가 : 연평균 증가율 7.4% ○ 자국민 해외관광객 수 증가 : 2012년 8,300만 명→2017년 1억 3,000만 명 ○ 양로보험가입자 수 9억 명 육박 ○ 의료보험 가입자 수 13억 5,000만 명 육박 ○ 판자촌 및 농촌 부실위험가옥 개조(각각 2,600만 호, 1,700만 호)
생태환경 호전	○ 대기, 물, 토양오염 예방퇴치 관련 법조항 제정·실시 ○ 에너지 및 물 소모량 : 집권 초기 대비 약 20% 감소 ○ 중점도시 중대오염 일수 : 집권 초기 대비 50% 이상 감소 ○ 삼림면적 증가 : 집권 초기 대비 1억 6,300만 무(畝, 1무=약 666㎡) 증가 ○ 사막화 토지면적 감소 : 연평균 감소량 2,000㎢ <sup>2</sup>

자료: 중국정부망 2018년 중국양회 특집 홈페이지(<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자료 참고 재작성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총평을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 집권 1기의 9대 국정운영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총평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총평과 달리 수치 제시가 아닌 실제 추진했던 구체적인 정책과 그 의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난 5년의 성과를 검증한 것이다.

9대 성과를 설명하며 양적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시하고 내생적 성장동력의 확보, 빈곤 퇴치, 공급과잉 해소 등을 통해 그 부작용을 완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4)</sup>

4) 리커창 총리는 ‘편안한 시기에 위기감을 갖고 번성한 시기에 근심을 잊지 않았다(安不忘危, 興不忘憂)’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난 5년간 양적성장의 부작용 해소와 질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였다.



<표 3>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국정운영 9대 성과

성과	주요 내용
안정적 발전기조 유지(穩中求進)하며 거시경제 관리체계 혁신·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 :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지방채 관리 강화, 재정적자 비율 안정적으로 유지</li> <li>○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 : M2통화 공급증가 속도 하락, 사회용자 규모의 합리적 증가, 환율시장 시스템 개혁 및 최적화, 위안화 환율 안정화 등</li> </ul>
공급측 개혁 지속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추진 : 강철, 석탄 등의 과잉생산 감소, 부동산 재고량 감소, 기업부채 및 원가감소, 기초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시설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li> <li>○ 인터넷 플러스, 제조2025, 현대적인 서비스업 강화 등을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육성</li> <li>○ 원활한 공급측 개혁 추진을 위한 행정 간소화 실시 등</li> </ul>
혁신주도형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수립·추진</li> <li>○ 혁신생태계 최적화</li> <li>○ 혁신주체의 다양화 및 성과관리 체계 개혁 등</li> </ul>
전방위 개혁 실시 및 제도적 폐단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과 자산의 개혁 추진</li> <li>○ 재정·세제, 금융, 부동산, 의료, 양로보험 등 사회 제 분야의 제도개혁 실시 등</li> </ul>
대외개방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전략 추진</li> <li>○ 자유무역실험구, 전자상무종합실험구 설립</li> <li>○ 국제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 시행</li> <li>○ 선강통, 후강통, 채권통을 활용한 금융시장 개방 등</li> </ul>
지역균형발전 및 신형도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프로젝트, 양쯔강 경제벨트 발전전략 추진</li> <li>○ 민족, 국경지대, 빈곤지구 발전역량 제고</li> <li>○ 합리적인 해양보호 및 개발 추진</li> <li>○ 도시군 개발 및 대, 중, 소 도시 간 협조발전 촉진 등</li> </ul>
인본주의적 발전사상에 근거하여 민생보장 및 개선대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구제를 위하여 대량의 재정자금 투입</li> <li>○ 농촌 학생들의 의무교육 확대 및 영양개선을 위한 정책 실시</li> <li>○ 주민의 기본의료보장을 위한 재정보조 확대 등</li> </ul>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감소</li> <li>○ 하천 및 해양 수질오염 수준 감소</li> <li>○ 화석 및 농약 사용량 감소</li> <li>○ 파리협정 발효를 위해 적극 노력 등</li> </ul>
법치주의 확립 및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 목록 공포</li> <li>○ 대정부 감사 강화</li> <li>○ 도시와 농촌의 기층 거버넌스 체계 확립</li> <li>○ 식품·의약품 안전, 자연재해 보호 등 공공안전보호체계 확립 등</li> </ul>

자료: 중국정부망 2018년 중국양회 특집 홈페이지(<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월간 중국(2018), 도표로 보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 인민화보·아주경제, 2018년 4월호. p. 33. 참고 재작성

### 3. 2018년 주요정책 방향

- 2018년 ‘정부업무보고’와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과 2018년 동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2018년의 주요 국가발전 목표가 제시되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모, 질적 경제발전수준 제고, 고용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민생복지 수준 제고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고속 경제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며 안정적·효율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생복지 수준 제고를 통해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번 양회 관련 문건에서 자주 등장한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정확히 헤아려 행한다(盡力而爲, 量力而行)’라는 표현처럼 과도한 수준의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에 비해 인민들이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들이 다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표 4> 2018년 중국 주요 국가발전 목표 및 세부추진 목표

주요 국가발전 목표	세부추진목표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모	GDP 성장률 : 6.5% 내외
질적 경제발전수준 제고	○ 공급측 개혁 지속 ○ 제조업 산업구조 최적화 및 전략적 신행산업 발전 추구 ○ 서비스업 성장률 : 약 7.6%(GDP 대비 약 52.2%) ○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성장률 : 약 10% ○ 과학기술발전의 경제성장 기여율 : 58.5% 등
고용안정	○ 도시 신규 일자리 증가량 : 1,100만 명 이상 ○ 전국 도시조사 실업률 : 5.5%(농민공 등 비호구 인구 포함) ○ 전국 도시등기 실업률 : 4.5%
물가안정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3%
국제수지 균형	구체적인 목표치 미제시→수출입 구조 안정화, 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의 안정적 발전 등 정책방향 제시
민생복지 수준 제고	○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감축 ○ 호구 인구기준 도시화율 1% 제고 ○ 노후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빈곤층 280만 명 신규 주거지로 이주

자료: 중국정부망 2018년 중국양회 특집 홈페이지(<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및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과 2018년 동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關於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참고 재작성

● 또한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과 2018년 동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2018년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0대 주요임무를 제시하였다.

2018년 주요 국가발전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한 것으로 각 분야별 정부의 책임과 임무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공급측 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기본·핵심 영역의 개혁 심화, 3대 핵심 문제(금융 및 재정리스크, 탈빈곤, 환경오염 해결 문제) 해결, 농촌발전 전략 적극 추진, 지역협동발전 전략 추진, 소비촉진 및 투자 효율화, 전면적인 대외개방, 민생생활 보장 및 개선, 생태문명 건설 역량 제고 등이 그 내용이다.

<표 5> 2018년 중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10대 주요임무

임무	주요내용
공급측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 경제성장 및 경제운용의 효율성 제고</li> <li>○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li> <li>○ 삼거일강일보 지속 추구</li> <li>○ 수리,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시설 건설</li> </ul>
혁신형 국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혁신체계 건설</li> <li>○ 과학기술혁신 발전의 돌파구 마련</li> <li>○ 일반인 창업 촉진</li> <li>○ 군민(軍民) 융합을 통한 혁신발전 수준 제고</li> </ul>
기본·핵심 영역의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간소화 개혁 지속 및 재산권 제도 정비</li> <li>○ 시장원리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체계 구축</li> <li>○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구축</li> <li>○ 국유기업 및 국유자본의 개혁 심화</li> <li>○ 재정·금융제도 개혁 심화</li> </ul>
3대 핵심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채무관리 리스크 중점 관리</li> <li>○ 빈곤구제 노력 구체화</li> <li>○ 환경오염 방지 노력 지속</li> </ul>
농촌발전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융합발전 컨트롤타워 구축</li> <li>○ 농촌개혁의 전면화</li> <li>○ 식량안보 강화 및 현대농업 발전체계 구축</li> </ul>
지역협동발전 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협조 발전 추진</li> <li>○ 징진지 프로젝트, 양쯔강 경제벨트 구축,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 건설 추진</li> <li>○ 신형도시화 발전 지속 추진</li> </ul>
소비촉진 및 투자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촉진 시스템 구축 및 소비환경 개선</li> <li>○ 소비촉진의 신성장동력 마련</li> <li>○ 농업, 혁신, 생태, 민생 등 중점분야 투자구조 최적화 추구</li> </ul>
전면적인 대외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정책 추진 및 무역 강국 건설노력 심화</li> <li>○ 안정적 외자이용 구조 확립</li> <li>○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적극 장려</li> </ul>

민생생활 보장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 질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 노력 실시</li> <li>○ 다양한 사회보장체계 구축</li> <li>○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제공능력 강화</li> <li>○ 주택제도 개혁</li> </ul>
생태문명 건설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저탄소 순환 발전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 구축</li> <li>○ 생태문명체계 개혁 및 생태계 보호 강화</li> <li>○ 친환경 생활방식 장려</li> <li>○ 기후변화 적극 대처</li> </ul>

자료: 중국정부망 2018년 중국양회 특집 홈페이지(<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2017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과 2018년 동 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關於2017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201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참고 재작성

### Ⅲ. 종합 및 시사점

-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가능성을 높인 헌법개정이 단행되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핵심인사들의 인선과 정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기반이 강화되었고 집권 1기에 추진해 온 국가정책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들이 등용되었다. 유사업무를 가진 부처들이 통폐합 되었으며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타부서로 이관되었다.

또한, 환경보호부를 생태환경부로 개편하면서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생태문명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알렸고, 농업부를 농업농촌부로 개편하면서 신농촌건설과 같은 농촌재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 집권 1기의 국정운영 평가와 2018년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지난 5년 간 중국이 양적인 측면의 경제·사회성장만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역시 이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8년 정부정책은 과학기술혁신과 내수소비 진작, 고용 및 물가안정 등에 초점을 둔 안정적·효율적 경제성장, 민생복지 수준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설명하였다.

- 2018년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다. 충남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에 대한 가파른 추적이 예상되며 충남은 이러한 정책방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충남의 주력산업 동조화 수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산업 분야의 혁신

능력 제고, 분업·협력구조 구축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소비시장 육성이 국가경제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충남 소비재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의 소비계층 다양화, 중국 소비자의 고급 프리미엄 상품 선호 경향 심화, 온라인 마켓의 폭발적 성장세, 지역별 소비시장 특징 등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충남의 유망 농수산물, 화장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에는 대외개방을 전면화 할 예정이며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이 적극적으로 대 중국 지방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과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환황해권에 같이 입지하여 충남과 공존·공영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중국 각 지역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항, 한중 해저터널 건설 논의 심화 등 이슈와 관련하여 향후 충남과 긴밀한 정책협력이 필요한 산둥성, 징진지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이며 충남과의 교류역사가 깊은 허베이성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주로 장쑤성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분야 협력사업도 점차 중국 연해안과 내륙지역으로 확대하여 충남-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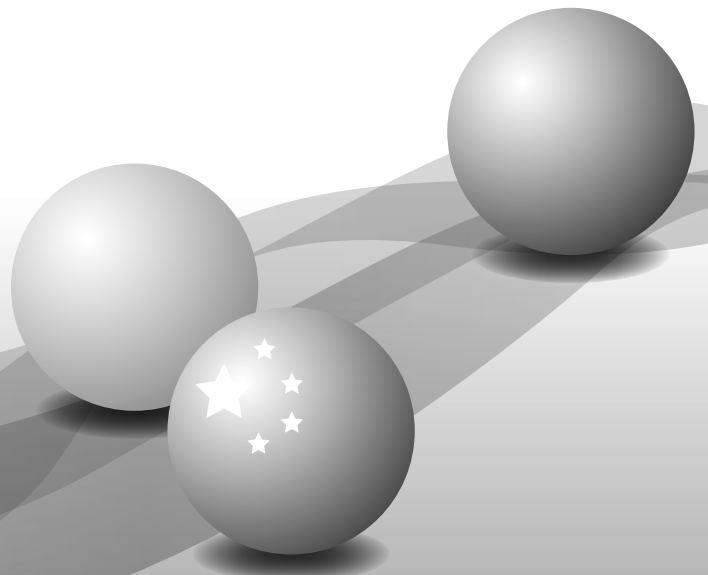
참고문헌

성균중국연구소(2018),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종합분석,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월간 중국(2018), 도표로 보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 인민화보·아주경제, 2018년 4월호.  
이현태 외(2018),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제 18권 12호.  
현대경제연구원(2018),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과 한중 경제관계 방향-한중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제18권 12호.  
이지훈 외(2018), 2018 권역별 진출전략(중국), kotra.  
중국정부망 2018년 양회 특집 홈페이지(中國政府網2018年全國兩會專題): <http://www.gov.cn/zhuanti/2018lh/index>  
人民日報, 2018年全國兩會主要內容: 兩會重要內容+熱點概括總結, 人民日報, 2018年4月3日  
人民日報, 2018年全國兩會內容重點: 換屆、修憲、推進機構改革, 人民日報, 2018年4月3日

##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산둥성, 《저탄소발전사업 방안》 발표
- ▶ 2. 상하이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 ▶ 3. 윈난성,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발표
- ▶ 4. 광저우시, 《IAB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5개년 행동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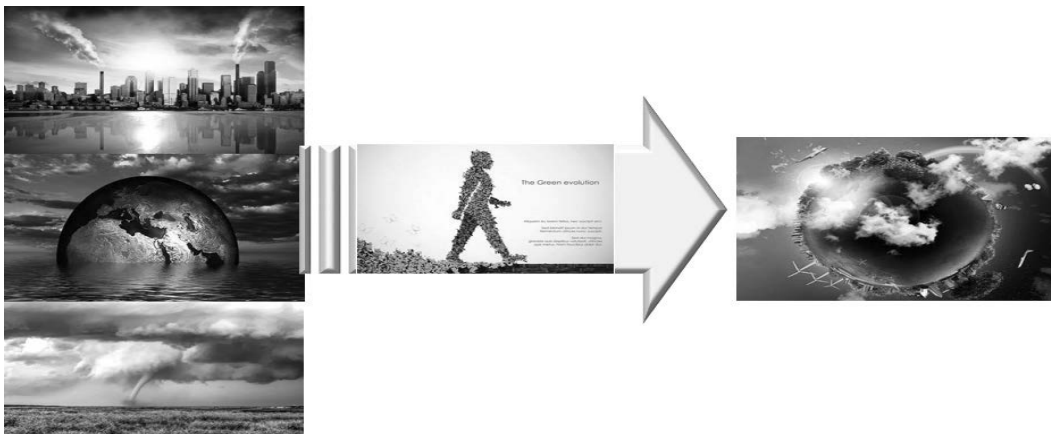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전춘복·송영현



1

## 산둥성, 《저탄소발전사업 방안》 발표

- 2018년 1월3일 산둥성 정부는 《저탄소발전사업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녹색·저탄소발전을 추진하여 에너지 활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목표 명확화
  -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5% 감소시키고 산업계 및 소비자의 저탄소에 대한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자료를 통계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림 1> 산둥성 정부가 제시한 대기오염 탈출 및 녹색성장의 길

자료: 中國環保在線

- 산둥성 정부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1>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세부실행방안

구분	내용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화율 제고</li> <li>○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li> <li>○ 카본싱크(이산화탄소 흡수원) 증대</li> </ul>
세부 실행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 배출량 지역별로 20~23% 감소</li> <li>○ 탄소제로지구, 생태지구, 개발제한지구 등 지정관리</li> <li>○ 저탄소기술개발 연구기관 간 연맹 구축</li> <li>○ 에너지 소비 관리용 데이터플랫폼 구축</li> <li>○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화</li> </ul>

- 탄소 다(多)배출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 역시 도출하였다.

<표 2> 탄소 다(多)배출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

구분	업종별 전략
전력산업	○ 낙후 석탄발전설비 폐쇄 및 대용량·고성능·저배출 석탄발전설비 개발
강철산업	○ 강철산업 에너지 절약 실현 ○ 생산과정 중 잔여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를 재순환시켜 활용하는 방안 구축
비철금속산업	○ 구리, 알루미늄 등 에너지 소모와 공해 배출규모가 큰 소규모 기업의 생산중단 실시
석유화학산업	○ 낙후시설 가동중단 및 에틸렌을 이용한 생산시스템 개선
화학공업	○ 에너지 사용 최적화와 잔여에너지 순환 및 절전 실행 ○ 저효율 생산시설의 확충을 억제하고 고성능 녹색화학 산업 구현
건설자재업	○ 시멘트산업의 청결화 추진하고 기업의 분진시스템 적극 개선
제지산업	○ 친환경기술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

- 뿐만 아니라 저탄소산업발전의 신(新)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5대 세부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 저탄소산업발전의 신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저탄소에너지 발전 가속화 계획,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산업 확대 계획, 저탄소건축물의 보급 및 확대 계획, 저탄소교통수단 개발 계획, 인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저탄소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2

### 상하이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 상하이시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이하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였다.
  - 2017년 말 기준, 상하이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총량은 61,354대로 전년대비 35%이상 증가하였다. 충전시설은 총 129,986개이며, 이 중 공공시설은 25,707개, 전용시설은 21,332개, 개인시설은 82,947개였다.



-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수입산 제외)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지원도 실시된다고 설명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원정책》의 세부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상하이시에 호구를 둔 시민
	○ 현역군인과 현역 무장경찰
	○ 상하이시 거주증소지자 중 최근 24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을 연속 1년 이상 납부한 자
	○ 홍콩·마카오·대만(港澳台)주민, 화교와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상하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적용시기	○ 2018년 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적용범위	○ 상하이시에서 판매 또는 사용 중인 차량 ○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목록》에 등재된 차량 ○ 상하이시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대중교통용 차량 제외)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 중앙정부 지원액의 50% 시에서 지원 ○ 충전식 하이브리드(배기량1.6cc이하) : 중앙정부 지원액의 30% 시에서 지원

-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지원·관리방법으로 아래 <표 2>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용번호판

자료: 國際新能源網

<표 2>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관리 및 지원방안

구분	내용
전용번호판	○ 전용번호판 발급 ○ 폐차, 타 관할구 이전, 말소등기, 도난차량의 번호판 폐기 및 재발급 금지
편리한 교통체제	○ 신재생에너지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우대

투자 및 기술지원	○ 신재생에너지 차량 상업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차량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장려
중고차 명의이전	○ 3년 내 명의이전 불가
감독관리	○ 상하이시 관련 각 부처가 생산자와 판매자 관리감독 ○ 허위자료로 인한 지원금 수급 근절 : 발각 시 지원금 환수, 자동차 등록말소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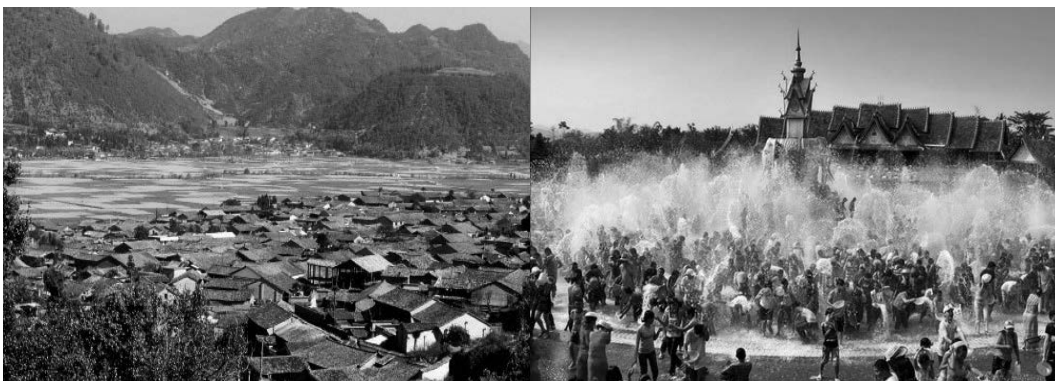
● 《지원정책》은 “3개 견지(三个堅持), 3개 전환(三个轉變)”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3개 견지 : 신재생에너지 차량사업을 지속발전 시키고, 시장의 자원분배 역할을 유지시키며, 사회 각 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양호한 소비환경을 수립한다.
- 3개 전환 : 신재생에너지 차량 중심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시키며, 연료저장장치구조를 변환한 자동차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로 인정하도록 한다.

### 3

## 윈난성,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발표

● 2018년 2월 7일 윈난성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림 1> 윈난성 소수민족 문화보호구 전경과 타이족(傣族)의 살수절 풍경

자료: 雲南非物質文化遺產保護網

●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 원난성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 전통문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건설·유지시켜 나가고자 한다.
- 또한 2020년까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과 성급 무형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수를 각각 130개, 500개로 늘리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생산보호기지 25곳, 성급 전통문화생태보호구 100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의견》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기반 구축, 활용확대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원난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10개 세부 추진방안

목표	추진방안	내용
보전·관리기반 구축	실태조사 실시	○ 보존상태, 현존환경, 전승현황 등 조사
	분류 및 지정체계 개선	○ 신규지정·변경·삭제항목 재정비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연수계획' 작성·시행 ○ 전승자 대상 교육시설 확충 및 활용 활성화 ○ 유명 전승자를 교육자로 양성
	생태계 구축	○ 국가급 문화생태보호시험구 2곳 건설 ○ 무형문화재 전승 공간 보호
	기록·관리 체계화	○ 역사가치가 높지만 전승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강제적·구체적 기록·관리
	지식자원화	○ 지역 무형문화유산 기록보존과 지식자원화 ○ 전승자 네트워크 강화
활용확대	합리적 이용방안 마련	○ 관광지와 무형문화유산의 융합 발전 촉진 ○ 대외문화교류 중 무형문화유산의 역할 증대
	보호·이용설비 건설	○ 박물관, 전시관 등 시설 건설 ○ 민족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보호시설(박물관 등)의 융합 촉진
	홍보·전시·공연수준 제고	○ 전시, 공연, 강좌 지속적으로 진행 ○ 교육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애국주의 가치관 교육과 연결
	보호관리 사업 강화	○ 무형문화유산 보호의식 보급 ○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강화

● 또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원난성 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강화, 재정지원 강화, 사회 각 계층의 참여강화, 전문기관의 기능강화, 전문인력 양성강화, 법적제도 강화 등 다양한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 4

## 광저우시, 《IAB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5개년 행동계획》 발표

- 2018년 1월 17일, 광저우시에서 발표한 《IAB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5개년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 시정부 상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IAB산업은 하이테크 산업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 정보처리기술 산업(Information), 인공지능 산업(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의약 산업(Biology)을 의미한다.
-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광저우시에 국제화된 소프트웨어 도시, 세계적인 인공지능 응용시범구, 바이오의약산업 중점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림 1> 광저우시에서 추진 중인 IAB산업 설명도

자료: 鳳凰科技報

- 세부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 10개 혁신단지 건설 : 정보기술단지5개, 인공지능단지3개, 바이오의약단지2개 건설
  - 500억 위안(미화 약 795억 달러) 규모의 발전기금 성립
  - “IAB 인재 장학금제도” 개설
  - 100개의 “IAB 중점혁신 플랫폼” 건설
  - 1000개의 IAB 중점혁신성과 전환프로젝트 실시

- IAB 세부영역에서 100개의 우수기업 육성
- 광저우시는 세부 추진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요과제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 IAB산업 육성을 통한 시의 혁신생태계 완성
  - IAB기업의 기술향상을 토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체계 구축
  - 다양한 산업을 집결시켜 “생산, 생활, 생태” 가치가 동시에 보장되는 혁신산업단지 건설
  - IAB산업 간 융합발전을 가능케 하는 응용시범구 건설 추진
- 또한 광저우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실시하여 IAB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IAB기술혁신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하고 성과의 토착화 장려
  - 전략산업 리스트 작성하고 국산 IAB제품 보급 촉진
  - IAB기업의 자산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조치 실시하고 정부보조금 지급
  - 제약회사가 제약기술 모방방지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강화
  - IAB산업단지를 매년 최소 333.33ha 조성하고 10개 혁신단지와 중점 IAB산업분야 기업 입지
  - 기업의 데이터기술 응용발전과 생산과정 지능화 지원
  - 정부가 출선수범하여 데이터 개방계획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개방이 필요한 세부데이터 리스트 작성
  - 고등교육기관이 IAB 관련학과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광저우시 내 각 구(區)정부가 주도하여 IAB산업 발전기금 마련하고 민간자본이 IAB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

## 참고문헌

山東省人民政府, “山東省低碳發展工作方案”(http://www.shandong.gov.cn/art/2018/1/3/art\_2442\_230758.html)(검색일 : 2018. 03. 15)

中國產業經濟信息網, “上海鼓勵購買和使用新能源汽車新政公布”(http://www.cinic.org.cn/yq/nyyq/421097.html)(검색일 : 2018. 03. 01)

云南省人民政府, “進壹步加強非物質文化遺產保護工作的意見”(http://www.yn.gov.cn/yn\_zwlanmu/qy/wj/yzf/201801/t20180130\_31835.html)(검색일 : 2018. 03. 19)

廣州市人民政府, “廣州市加快IAB產業發展五年行動計劃”(http://www.gz.gov.cn/gzgov/s2811/201803/26f4989a739547d28ae873cd95bf5834.shtml)(검색일 : 2018. 0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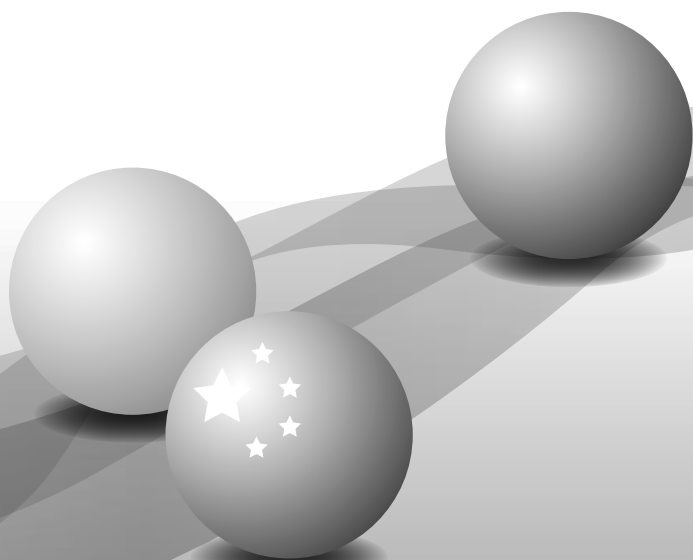
현대중국의  
이해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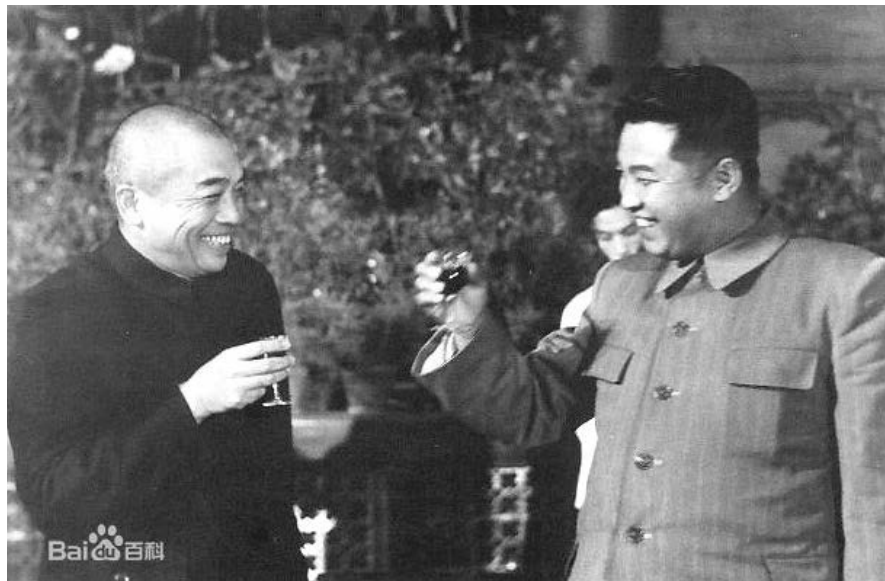
## 핑더화이와 린바오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린바오(林彪)는 원래 1959년 루산(庐山)회의 초기에는 신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가를 신청하고 루산에 오지 않았었다. 마오쩌둥이 평더화이(彭德怀)의 의견서 편지를 본 후에 평을 숙청하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 중공 중앙 판공청에 루산에서 계속하여 중공 8기 8중전회를 개최할 것과 그때까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중앙위원들을 급히 루산으로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린바오는 중앙위원 소집통지를 받고 루산에 와서 마오와 평더화이 간에 불화가 발생한 것을 알았고, 마오를 만난 후에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 원래부터 마오의 지시대로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던 커칭스(柯庆施), 천보다(陈伯达), 캉성(康生), 그리고 뒤늦게 루산에 올라와 가세한 린바오 등의 집중적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처음엔 분기탱천하여 반박도 하고 항변도 하던 평더화이가 결국엔 비판을 받아들여기로 하면서 1959년 루산회의가 마무리되었다.
- 린바오는 광저우 황푸(黄埔) 군관학교 출신으로, 공산당 입당 후 항일전쟁과 1, 2차 국공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특히 일제가 패주한 후, 진행된 2차 국공내전에서는 만주지구에서 인민해방군 동북야전군을 지휘하면서 랴오닝-선양전투(辽沈战役)를 승리로 이끌고, 1948년 8월에는 만주지구 토지의 97%, 인구의 86%를 점령했다.
  - 중공이 "해방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제2차 국공내전에서 초기에 승기를 잡고, 국민당 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와 보급물자, 전향한 포로 등으로 증강된 병력을 다시 회해전투(淮海战役)와 베이징-톈진 전투(平津战役)에 투입할 수 있었기에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총체적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따라서 전투능력 면에서는 린바오가 평더화이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았고, "전쟁의 천재", "전쟁 귀신"이란 별칭이 있었다. 인민해방군 지휘관 중 "전쟁 귀신"으로 불리며 린바오에 비길 만한 장군은 소수민족인 동족(侗族) 출신의 수위(粟裕) 대장 정도였다.
- 한국 전쟁 발발 후, 마오쩌둥이 고뇌 끝에 북조선 지원을 위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파병을 결정하고, 파병 총사령관에 린바오를 임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린바오는 마오쩌둥의 의중을 알면서도 마오의 면전에서 강하게 출병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에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소련으로 요양을 가버렸다.
  - 린바오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당시 서북군구 사령관이었던 평더화이는 마오의 뜻을 받들고 항미원조 지원군 총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당시 세계 최강으로 압록강변 중조 국경선 부근까지 밀고 올라온 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밀어 내고(1951년 1.4 후퇴),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남한과 북한 간의 휴전선(停戰線)을 확정하고 정전(停戰)협정을 이끌어 내는 전과를 올리고 개선장군, 인민의 영웅으로 귀국한 후, 승승장구하면서 국방부장으로 중공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진 1> 항미원조전쟁 중공 지원군 사령관 평덕화이와 김일성

출처: 百度

- 평덕화이의 군사지휘권은 줄곧 린바오 보다 위에 있었다. 산시-간수(陝甘)지대에서 평덕화이는 사령(司令), 린바오는 부사령(副司令)이었다. 또 그 후에 평덕화이는 팔로군(八路军) 부총지휘(副总指挥), 린바오는 115사 사단장(师长)이었다.
  - 린바오(林彪)는 본래 격렬한 전투에 대담하게 정면으로 임하는 평덕화이(彭德怀)를 존경하고 흠모해 왔다. 평덕화이는 린바오보다 나이도 많았고, 줄곧 중앙홍군의 지휘자 중 한사람이었고 평장봉기(平江起义)를 지휘했다. 홍군 초기에, 특히, 장정(长征) 중에는 두 사람이 상호협력하여 군사지휘를 한 적이 적지 않았다.
  - 홍군의 투청(土城)전투 후 후이리(会理) 회의 전에, 린바오는 아군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끼고, 평덕화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덕화이가 마오쩌둥을 대신해서 전체 홍군의 군사지휘를 맡을 것을 제안했다. 후에 이 편지를 본 마오는 격노했다.
  - 루산에서 모두가 평덕화이를 비판할 때에 다시 그 편지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린바오는 그 편지는 자신이 썼고 평덕화이와 관계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평은 이때 감동 받았다고 조사 받으며 쓴 자신의 자술서(彭德怀自述) 안에도 그에 대한 소감을 썼다.
- 중공 10대 원수 중 하나이고,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니에룽젠(聂荣臻)은, “정권이 공고해 진 후, 황제와 같은 지위에 있던 마오쩌둥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평덕화이(彭德怀)와 린바오(林彪) 두 사람 뿐이었다.” 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성격, 사고방식, 행동은 모두 대조적이었다.
  - 항일전쟁 시기에는 두 사람 모두 팔로군이 오직 유격전만 하면서 군사력을 보존해야 한다



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린바오는 평싱관(平型关)전투를, 그 후에 평더화이는 백단대전(百团大战)을 발동했다. 이는 모두 중공중앙군사위원회의 의도를 위반했다고 비판 받았다.

● 린바오의 개성도 마오쩌둥이나 평더화이 못지 않게 매우 강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 린바오는 특히 말수가 적고 과묵했다. 그가 옌안 당교로 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고 가서, 강의에 기대를 품고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자본주의는 소수만이 돈을 벌고, 공산주의는 모두가 돈을 번다. 강의 끝”이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 마오쩌둥에 의해서 후계자(接班人)로 거명되기 전에는 개인적 자리에서는, “대약진”에 대해서 마오에게 “공상에 기대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고, 평더화이의 편지 “만언서(万言书)”에 대해서는,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좀 조급했다”고도 말했다.

● 그러나 후계자로 거명된 후 린바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오에게 말대꾸하거나 맞서지 않았고, 당시의 선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마오 앞에서는 항상 비굴해 보일 정도로 겸손한 웃음을 달고 선생님 앞의 학생처럼 행동하면서, 마오쩌둥 어록을 흔들면서, 마오의 “4가지 위대(四个伟大)한 점”과 “천재(天才)”를 입에 달고 다니듯이 외쳐댔다.

- 수십년간 린바오를 곁에 두거나 지휘하면서 동고동락해 온 마오는 이러한 상황을 은근히 즐겼다. 이는 독선과 고집, 자신감이 강한 마오의 성격과 관계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갈수록 습관화되고 증독 상태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자신을 추켜세워 주는 걸 좋아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다.

● 린바오는 마오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홍위병들이나 군중들 앞에 나서기를 즐겨하는 걸 알고, 대규모 군중대회를 조직하고 마오를 수행하고 다녔지만, 내심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했다.

- 밖에서 마오를 수행하고 다닐 때에는 “4개 위대(四个伟大)”를 입에 달고 외치고 다녔지만, 자신의 거처인 베이징의 마오자완(毛家湾)에는 마오의 초상화조차 걸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

● 린바오(林彪)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마오를 위해서도 4인방 중 세 마리 뱀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江青)은 백화뱀(白花蛇), 장춘차오(张春桥)는 코브라, 야오원위안(姚文元)은 방울뱀이라 지칭했다.(그 당시에 야오원위안은 아직 당중앙 보직에 임명되지 않았었다.)

- 린바오가 아들 린리궈(林立果)와 쿠데타를 계획하면서 만든 강령에는, 이들 간신배들을 제



<사진 2> 홍위병들의 환호 속에 입장하는 마오쩌둥과 린바오

거하고, “신정(新政)”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신정”의 제1조는 바로 문화혁명 중지와 현재의 “강국빈민(強國貧民)” 정책을 “강국부민(強國富民)” 정책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 중공은 린바오가 쿠데타 모의 발각된 후 국외 탈주를 시도하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1971년 “9.13 사건” 이후에 린바오 집단을 타도한 것도 “문혁의 승리이고 마오 주석의 승리” 라고 선전했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 갈 수 없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마오쩌둥 자신이 명확히 알고 있었다.
  - 원래 그보다 먼저 후계자로 지정한 류샤오치를 바로 자신이 반혁명으로 몰아 숙청하고, 린바오를 후계자로 지정했고,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숙청했고, 수십만 수백만 홍위병을 천안문 광장에 동원하는 등 린바오가 가지각색으로 연출한 우상화 놀음을 즐긴 것도 바로 마오쩌둥 자신이었다.
- 1959년 루산에서 린바오는 마오의 호출을 받고 왔으므로 회의에서 평덕화이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린바오가 회의에서 평덕화이에게 한 말은, “오직 마오 주석만이 영웅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영웅이 되려고 해선 안 된다. 당신이나 나는 아직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정도였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덕화이를 반당집단(反黨集團)이나 소련의 스파이로까지 몰아세운 것과 비교하면 신랄했다고 할 수는 없다.
  - 후에 린바오가 가족과 함께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 몽골 인민공화국 초원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죽은 후, 1972년 1월 8일에 평덕화이 조사조(專案組)가 평덕화이에게 린바오 반당(反黨) 사건을 통보하고, 린바오의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하라고 했을 때, 평덕화이는 린바오가 자신에게 박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여겼으므로 적당히 모호하게 얼버무리며 린바오

를 비판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즉, “40여 년 전 일이라, 잘 생각나지 않는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고 말했다.

- 1972년 6월에 조사조가 다시 평더화이를 불러내서 린바오와 가오강(高岗)이 동북지구에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평더화이가 말하기를, “나는 당시에 동북에서 그들과 같이 일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래도 조사조가 며칠 간 계속 불러내고 심문하며 압박하자 평더화이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다, 펜을 달라. 생각나는 대로 써보겠다. 가오강, 린바오 모두 반혁명이다. 또 평더화이도 있다.”

● 1959년 루산회의 이후, 특히 1966년 문화혁명 발동 이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기간 학대와 모욕을 받은 평더화이(彭德怀)는 감방 안의 나무 침대 위에 누워서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었다. 당시 평더화이의 통한의 심정을 일부분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베이징시 경비지구(卫戍区) 감호소의 일지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971. 8. 8: (평더화이가) 탁자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고, 잠은 거의 안 잤다. 눈을 크게 뜨고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잠시 후 다시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다시 울기 시작했다.
- 1971. 8. 18: 오전에 심사가 있다는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다.
- 1972. 11. 22: 침대에 누워 1시간 동안 울었다.



<사진 3>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장에 들어서는 평더화이

출처: 百度



<사진 4> 1959년 루산회의 이전의 평더화이와 마오쩌둥

● 마오쩌둥은 1959년 루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베이징에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고, 황커청(黃克成) 등 회의에서 평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부치기 위해서 루산회의가 끝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회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 회의 참석자들이 짐을 싸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던 날 저녁에 평더화이가 마오의 거소로 찾아와서 주석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경위들은 최근 수일간의 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평을 외부에서 기다리게 하고 마오쩌둥에게 보고했다. 평이 면담을 청한다는 보고를 들은 마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래, 그를 들여보내!”

- 경위들과 함께 들어온 평에게 마오가 소파에 앉은 채로 담담하게 “앉게”라고 말했고 평은 마오의 맞은 편에 앉았다. 마오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아들인 후 평에게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말해 보게”

평더화이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을 위해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면서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 중앙이 저를 옌안(延安)이나 후난성(湖南省)에 가서 농민이 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씨



<사진 5> 문화혁명 시기 군중대회에서 수난과 모욕을 당하는 평더화이

뿌리고 거두면 국가에 공량(公糧)도 납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마오가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만하자, 보아하니 너는 아직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나, 뭘 검토하겠나?”
- 평더화이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무겁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고, 마오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 평더화이가 가고 나서 경위병이 방에 들어와 찻잔 등을 정리하고 있을 때 생각에 잠겨있던 마오가 경위병에게 물었다. “자네 평더화이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는가?” 이어서 마오가 말했다. “평더화(彭得華)”, “得華, 중화 취득...!”

- 그리고 돌연 뭔가 꼭 필요한 조치가 생각났다는 듯이 전화기를 들고 중앙판공청에 연결한 후 지시했다. “군사위원회 판공청에 통지하라, 모레 베이징에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다. 평더화이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회의장으로 데리고 와서 계속 비판 받도록 하라”

●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조직과 평더화이에 대한 조사 등 구체적 준비는 평더화이 후임으로 국방부장에 임명된 린바오(林彪)가 황커청(黃克成)의 후임으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 임명된 뤼루이칭(羅瑞卿)에게 명령함으로써 진행되었다.

- 평더화이는 회의 시작일 하루 전인 8월 17일, 베이징 난위안(南苑)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곧바로 대기 중인 차에 태워져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懷仁堂)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

●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뤼루이칭이 회의 서기장을 맡았고, 군부내의 대표적인 인물 104인이 회의에 참석했다.

- 이들 대부분은 농촌 출신으로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실제 상황과 정보에서 벗어나면 잠깐의 실수로도 패전과 시체더미를 만들게 된다는 교훈을 체득하면서 살아온 자들이었기에, 소위 “고생산(高生産) 모범농장”을 참관할 당시에 한눈에 그것이 가짜란 걸 알아챘었다.
- 이들은 평더화이가 마오에게 보낸 의견서 편지 내용을 본 후에 내용상 틀린 점이 없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평이 제기한 문제와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임조 토론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 당시 국방부 소속 완이(万毅) 중장은, 자신이 조장을 맡고 있는 소조 참가자들에게, “내가 보기

에 평더화이의 의견서 내용은 실제에 부합하고, 어디에도 반당(反黨)적인 부분이란 없다. 현재 어떤 사람은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백성들의 질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임조회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평더화이의 의견서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분임조 참석자 모두가 함께 손을 들었다.

- 그러자 완이 중장이 말했다. “좋습니다. 모두들 찬성하니, 소조 해산을 결정합니다. 모두들 돌아가서 각자 공부하기로 합시다.”

-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평더화이와 황커청(黃克成) 등에 비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개적으로 평더화이의 의견서에 찬성 의견을 밝히고 학습소조를 해산까지 한 것은 마오쩌둥의 의중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완이 중장 소조에 관한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 린뱌오는 툴루이칭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을 불러서 의논한 후, 그날 밤 완이 중장을 체포 구금했고, 새로운 소조 조장을 보내 전체 소조회의를 다시 개최토록 했다.

- 루산회의 이후 평더화이는 국무원 부총리, 중앙정치위원회 상무위원, 국방부장 등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고, 이후 문화혁명 시기까지 마오쩌둥의 조종을 받는 장칭 등 4인방과 홍위병들의 박해와 모욕 속에 끊임없이 검토와 자아비판하는 자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기록된 평더화이의 출생 및 유년 시절, 그리고 군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은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기에 인간 평더화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평더화이의 자술서 중 유년 시절에서 군에 입문하기까지 시기의 내용을 소개한다. (“彭德怀自述”, 2002: 1-15)

## 평더화이 자술서

“나는 1898년 후난성(湖南省)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집안에는 백조부, 조모, 부모, 4명의 형제 8명의 가족이 8~9무(畝: 1무는 약666.7㎡) 면적의 황토와 산지에 생계를 의지하는 최저수준의 생활로 연명했다. 산지에는 종려나무와 차, 삼나무, 죽순을, 황토에는 고구마, 면화를 심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이 장남인 나를 6세 때 사숙에게 보내 주어서 삼자경논어(三字经论语), 대학(大学), 유학경림(幼学琼林), 맹자(孟子) 등을 배우고 그 외에 백가성(百家姓), 증광(增广)을 배웠다. 그러나 8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집안 형편이 더욱 곤궁해져서 사숙으로부터 배움을 중단해야 했다. 백조부는 여든이

넘고 조모는 70이 넘어서 3명의 동생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달 후에 생후 6개월 된 막내 동생이 굶어 죽었다. 집안 살림이 갈수록 곤궁해져서 산림수목을 팔고 황토와 초가집마저도 전당 잡히고, 집안에서 팔 수 있는 건 모두 내다 팔고 나니, 우리 형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겨울에도 맨발에 짚신을 신고 거의 원시인처럼 살았다.

만 10세때 정월 초하루날(春節)에 동네 부자집은 폭죽을 터뜨렸으나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없었다. 둘째 동생을 데리고 처음으로 구걸을 하러 나섰다. 글을 배우던 여우마탄(油麻灘)마을 천(陳)선생님의 집으로 갔다. 천선생님이 문기를 “너희들이 재물을 불러오는 아이들이나?”고 물었다. 나는 구걸하러왔다고 말하려 했으나, 동생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선생님이 반 그릇의 밥과 작은 고기 한조각을 주었다. 우리 형제는 황혼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으나 구걸한 쌀은 두 승(升, 1升=0.001㎡)도 안됐다. 나는 이미 굶주림에 어지러운 상태였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누운 상태에서 둘째 동생이 할머니에게 “형이 오늘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먹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야채를 넣고 끓여준 탕을 마시고 허기를 달랬다.

그해 정월 초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할머니가 나와 동생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니,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 네 명이 모두 나가서 쌀을 구걸하자”. 할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나서려 했으나 나는 문턱에 서서 버텼다. 나는 구걸하는 게 너무 굴욕스러워서 절대 갈 수 없었다. 내 고집이 센 걸 아는 할머니가 달래면서 말했다.

“안 간다고 하면, 어찌니?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수는 없잖니?” 할머니가 애쓰며 나를 달래며 말했지만, 나는 굶어 죽더라도 구걸하러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나를 포기하고 동생들만 데리고 집을 나섰다. 눈발이 날리고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70이 넘는 백발의 할머니가 두 손자를 데리고(막내는 채 4세도 안 되었음) 나무 막대를 짚고 작은 발로 기우뚱거리며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마치 가슴을 칼로 베는 듯이 아프고 괴로웠다.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는 할머니와 두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집 뒷산으로 올라가서 땔나무를 베어 모았고, 그것을 장에 가지고 가서 10문(文)을 받고 팔고, 작은 봉투에 든 소금 한 봉지를 샀다. 땔나무를 벨 때 산뽕나무 그루 밑에서 발견한 제법 커다란 버섯뭉치를 따가지고 와서 솥에 넣고 불을 지펴 끓여서 소금 쳐서 간을 해서 우선 큰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먹었다.

할머니와 동생들은 황혼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한 봉지의 밥과 쌀 3승을 얻어 왔다. 할머니가 얻어온 밥을 버섯탕 안에 넣고, 큰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내게 주었으나 나는 먹지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동냥해 온 밥이라고 안 먹겠다는 거냐? 자꾸 그러면 어떡하니? 끝까지 안 먹을 거면 우리 모두 같이 죽자”

그 시절의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지금도 그렇다. 그만 쓰고 싶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땔나무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장에 가서 팔았다. 뼈가 시린 추운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양말도 안 신은 채 누더기에 쥔신과 도롱이만 걸치고 굽주림과 추위에 떨었지만 다시 구걸하러 가지는 않았다.

이 시절에 큰할아버지가 자주 태평군(太平軍) 이야기를 해 주셨다. 큰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태평천국(太平天國)난에 참가했었다고 했다. 태평군은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밭과 토지도 균등하게 나누고, 여자들 전족을 풀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부자를 타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고, 살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열 살에서 열두 살 때 까지는 마을의 부농 류(劉)씨 집에서 소를 돌보는 일을 했다. 첫해에는 하루에 5문을, 2년차 해에는 10문을 받았다. 물소 두 마리였는데 매일 30여근의 풀을 베어 먹여야 했고, 류씨 집안의 다른 일도 해야 했으므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하루에 6시간도 채 못 자고 일했다.

열세 살이 되는 해부터는 집에서 멀지 않은 황치링(黃磧玲) 토탄가마(土煤窯)에서 동공(童工) 노릇을 했다. 수차를 끌고 석탄굴 속의 물을 퍼 담아 밖으로 나르는 일을 했다. 매일 12-13시간 일하고 노임은 하루에 30문(文)이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매일 한두 차례 석탄굴에 다시 가서 석탄을 캐다. 매우 힘든 노동이었다. 석탄을 등에 지면 머리가 기름등잔에 닿았다. 갱도안은 통풍이 안 되었고 위생조건도 매우 열악했고 종종 붕괴 또는 지하수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번에 십 수 명 또는 수십 명이 죽기도 했다.

2년째 되는 해 연말 무렵에 석탄광산이 적자로 부도가 났고, 광산주는 도망가 버렸다. 2년간 힘들게 노동했으나 노임은 1년 치밖에 받지 못했다. 그때 허리를 혹사해서 아직도 허리가 약간 굽어 있다. 소를 키우고 석탄광에서 일하던 이 4년 동안 나는 부농과 자본가가 노동자를,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참혹하게 착취하는 지를 체험했다.

14세이던 해 연말에 탄광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을 보니 매우 기뻐했다. 작은 동생이 날 보고 “큰형 아직도 신발을 안 신었어, 발이 모두 얼어서 갈라졌어” 라고 말했다. 내가 탄광주인이 도망가고 나서 해산할 때 직공들은 오직 쌀 4승(升)씩 나누어 가졌을 뿐이어서 신발 살 돈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울면서 내게 말했다.

“너의 목골이 까맣기도 하고 노랑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양새라 할 수 없을 정도구나, 그런 개만도 못한 놈들을 위해서 네가 2년간이나 이런 고생을 했다니...”

15세 때는 동네에서 단기 품앗이일(短工)도 하고 땔나무를 베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장



에 가서 팔았다. 그해에 큰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심각할 때에, 지주와 상인들은 매점매석을 하고 고리대를 놓았다. 굶주리고 분노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기하여 부호들의 식량창고를 부수고 식량을 탈취했다. 나도 봉기에 참가했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을을 소란케 했다고 고발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살던 당숙이 향의 단방국(團防局)에서 체포조를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돼지를 판 돈 1000문을 여비로 쓰라고 주면서 마을을 떠나서 동팅호(洞庭湖) 호수변에 가서 제방공사장 인부로 일하며 숨어 지내라고 했다. 그곳에 가서 2년간 제방공으로 일하면서 제공국(提工局)이 제방공들을 착취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이 2년의 기간 중에 눈이나 비가 와서 일을 못 할 때, 천막 숙소 부근 민가로 가서 농민들과 어울렸다. 약 2-3개월마다 한 공정이 끝나면 천막 숙소를 다음 공정 장소로 옮겼으므로 몇 번 옮기고 난 후에는 나와 농민들의 접촉범위도 제법 커졌고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후난성(湖南省)에서 가장 부유한 지구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거처와 양식이 없는, 즉, 우리 집처럼 극빈한 사람들이 도처에 흔하고, 고리대금 방식의 착취가 극심해서 일년 이자가 100%에 달한다는 것 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제공국(提工局)의 노동조직 형태는 제공국 아래에 도급 조장인 포두(包头)가 있고 각 포두 아래에 다시 수개의 봉두(棚頭)가 있었다. 노동자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각 봉(棚)에는 15-25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10개 미만의 봉이 모여 포(包)를 구성했다. 노동자들은 수입의 5%를 포와 봉의 우두머리인 포두와 봉두들에게 주어야 했다. 그 돈은 제공국의 감독관과 검수원에게 연말이나 명절 때 또는 그들의 집안 경조사 때 선물을 보내는 용도로 쓴다고 했다. 이 같은 착취가 매우 심했다.

봉(棚)에 장부정리 등 회계일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매달 또는 한 공정을 마친 후에 노임 계산을 하면서 끝자리 액수, 예를 들면 102위안이면 2위안을 떼었고, 그게 그의 노임이 되었다. 매 봉마다 취사담당원이 있었는데, 15인 이하 봉의 취사담당자는 3:7제로 일했다. 즉, 3할은 취사일, 7할은 흙 나르는 일을 했다. 16인 이상 봉의 취사담당자는 4:6제로 일했다. 나는 돈을 더 벌려고 취사와 흙 나르기 일 두 가지를 다했는데, 2년 반 동안 일하고 1916년 봄에 그곳을 떠날 때 오직 3단(担, 1担= 5kg) 반의 쌀을 받았다. 취사원 일을 겸하지 않은 자나 노동력이 약한 노약자 중에는 빚을 지는 자가 많았다. 따라서 호수 변 지구에서 장기간 노동자로 일해도 평생 고향에 돌아가기 힘들었다. 동팅호 주변지구가 소위 후난성의 쌀 창고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제방공들의 땀과 피와 뼈와 살이 쌓여서 된 것이었다.

제방공들이 착취에 항의하고 노임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할 때는 나도 참가했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영도(領導)가 없어서 작은 성공조차 거두는 경우가 드물었다. 제공국의 간부들 중에는 축재한 자가 많았는데 모두가 제방공들을 착취한 것이었다.

유소년 시기에 겪은 이 같이 빈곤한 생활은 나를 단련시켰다. 그 후의 생활 속에서 종종 유년기의 비참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나 자신은 부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빈곤한 인민들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채찍질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유년기의 생활 장면들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1916년 3월 중순에 후난(湖南) 군벌 상군(湘軍)에 병사로 들어갔다.(湘軍은 청조 말기에 정궈판(曾國藩)이 태평천국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후난성에 건립한 지방 군대로서 그 후 북벌전쟁 때까지 줄곧 상군이라 불렸다.) 내 생일이 9월 10일이니 당시 내 나이는 만으로 18세가 채 안됐으나 18세라고 강하게 우기고 입대했다. 군대에 간 주요 동기는 제방공 노임으로는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처음 소속된 부대는 후난 육군 제2사(師) 3여(旅) 6단(團) 1영(營) 1연(連)이었다. 이등병(二等兵) 시절에는 월급이 5.5위안이었고, 얼마 후 일등병(一等兵)이 되자 6위안을 받았다. 당시 급식비는 매월 1.8-2위안이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매월 급식비와 잡비를 쓰고 나면 3.8위안 정도 남길 수 있었으므로, 매월 3위안에서 3.5위안을 집으로 부쳤다. 당시에 큰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둘째 동생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셋째 동생 세 명뿐이어서 그 돈으로 근근이 살아갈 수 있었다.

당시의 국제 형세는 1차세계대전 중이어서 유럽과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의 중국 침략이 약간 완화된 상태여서 중국의 공업발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부국강병”이니 “실업구국(實業救國)”이니 하는 기만적인 자산계급의 애국사상이 도처에 떠돌고 있을 때였다. 나도 그 같은 사상에 영향을 받긴 했으나, 군대에 간 주요동기는 역시 빈곤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알렉산더 판초프외. 심규호 옮김(2017), 『마오저동 평전』, 민음사  
 胡哲峰, 于化民(2013), 『毛泽东与林彪』, 新世界出版社  
 왕단. 송인재 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張聿溫(2012), 『真相“九一三”』, 中国青年出版社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박상수 옮김(2009), 『중국현대사』, 심산  
 龐松著(2010), 『中华人民共和国史(1949-1956)』, 人民出版社.  
 彭德怀(2009), 『彭德怀自述』, 國際文化出版公司  
 林蘊暉(2008), 『国史礼记-事件篇』, 东方出版中心  
 王夢初(2008), 『大躍進親歷記』, 人民出版社  
 鄭博·肖思科(2005), 『黃克誠大將』, 解放軍文藝出版社  
 張壽之(1998), 『中华人民共和国演義(中卷)』, 作家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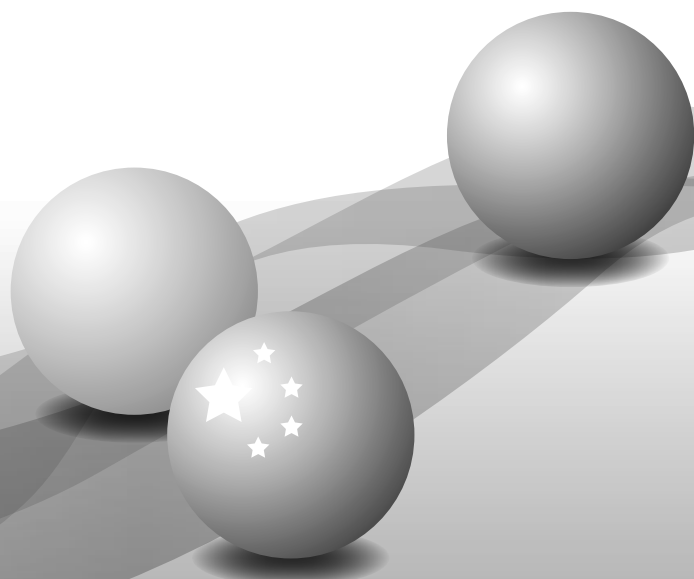


2.

## 나당전쟁의 최후 격전지, 서천 기벌포(伎伐浦)

|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기 어렵다 판단해 이즈음에 신라와의 전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옛 백제 영토의 거점 웅진도독부에서도 철수를 결정한다. 676년 7월 도립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육상에서의 전쟁이 끝났다. 당군은 676년 11월 황해 해로를 통한 철군을 위해 당의 명장 설인귀가 수군을 이끌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통일신라의 측면을 공격했다.



<그림 2> 당나라 장군 설인귀(薛仁貴)

자료: 나무위키



나. 당 전쟁

<그림 3> 나당전투 전개도

자료: 나무위키

그해 11월에 사찬 시득이 이끄는 통일신라 수군이 설인귀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과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으나, 시득은 다시 진군해 크고 작은 22번에 걸친 싸움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설인귀가 당에서 최정상급 장군이고 당나라가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를 칠 때 대선단을 동원해서 병력 수송과 물자 보급으로 짝짤한 재미를 본 만큼 당나라 수군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신라군은 뛰어난 수군 운용 능력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바탕으로 수군을 4천개나 취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 ● 대중국 무역기지의 꿈을 꾸었던 옛 기벌포, 장항

기벌포는 통일신라군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전승지였지만 이후 항구로써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와서야 항구다운 항구로 발전하게 됐고 이 시기에 장항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만들어졌다. 즉, 장항이라는 명칭은 서천군의 옛 남부면 지역에 있었던 장암리와 항리를 합쳐 만든 서남면 장항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2018년 현재 인구는 약 12만 명이며 하위에 10개의 법정리가 있다. 원래 장항은 서천군 남부면 일대의 갈대밭이었다. 이

지역의 땅을 갖고 있던 지주들도 개간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었던 불모지였다. 그러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서천군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고 이후 산미증식계획이 시작되면서 장항도 크게 변화했다.

당시 장항을 대표하는 산업은 제련소였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전략물자 조달의 결제수단으로 금을 사용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한반도에 제련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흥남제련소를 건설했던 조선제련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장항제련소가 건설되었다. 당시 장항제련소는 조선 3대 건식 제련소로써 명성을 갖게 되었다.



<그림 4> 근대 공업화의 상징이었던 장항제련소

자료: 서천군청

해방 이후에도 장항은 제련소를 뒷받침하는 항구로서 기능을 담당했지만 1980년 들어 제련소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항제련소의 시설은 울산 등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항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 전반적인 침체를 맞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말 정부가 군산을 포함해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을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기대했다. 정부는 아산만, 광양만과 함께 이 지역을 전국 3대 신산업임해공단으로 육성하고 대단위 항만을 개발해 대중국무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성 문제였다. 먼저 진행된 군산지구의 공단에도 IMF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항을 개발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 문제였다. 장항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장항읍과 마서면 일대를 간척해야 하는데 이 일대는 갯벌의 보전 가치가 높은데다가 철새도래지라는 점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결국 정부는 2007년에 장항지구 개발을 내륙산단으로 변경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을 잠재웠다. 그러나 장항제련소가 번성할 때는 3만 명 이상이었던 인구는 점점 줄어 현재는 1만 2천명 수준으로 떨어져 지역쇠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 ‘전쟁과 쇠락’의 바다에서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통일신라와 당나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기벌포 전투. 결국 통일신라 군대가 당나라 수군을 격파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전투를 끝으로 백제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1400여 년 동안 옛 백제의 영토는 쇠락을 거듭했고 이렇다할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기벌포 역시 전쟁의 역사만 간직한 채 버려진 포구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군산과 아울러 이 지역이 식미증산계획에 따라 간척이 이뤄지고 이 쌀을 공출하기 위한 항구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일제가 만주와 태평양 전쟁을 펼치면서 군수물자를 만들고 전략물자 결제수단으로 금을 사용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장항에 제련소를 만들면서 장항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중국 무역기지라는 큰 그림의 장항과 서천 일대의 개발은 더뎠고 지역민의 실망은 커져갔다. 다행히 정부의 개발 계획을 대신해 이 지역에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들어서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철새의 낙원이라는 유부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환경적 가치가 높아 서천군은 현재 이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 중에 있다.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중화학공업의 개발 계획이 철회되고 역사와 생태자원 복원을 통한 친환경 개발이 장항으로서는 미래의 경쟁력이자 미지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세계자연유산에 신청중인 철새 기착지 장항 유부도

지난 2015년 3월에 기벌포 해변에 장항 스카이워크가 개장되었다. 높이 15m, 총 길이 286m의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기벌포 해전 전망대’가 보인다. 전망대에선 넓게 펼쳐진 기벌포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고 근대 공업화의 상징이었던 장항제련소의 높은 굴뚝까지 조망된다. 장항의 푸르른 송림을 뒤로하고 해송의 솔내음을 맡으며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스카이워크 길을 걸으면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을 연지 2년 만에 관객 수 8만 명을 돌파한 기벌포영화관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서천군은 장항읍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벌포 문화예술회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외 장항읍에는 도심 재생 등을 통해 근대 산업유산으로 활용 가능한 장항제련소, 장항선과 역, 미창(米倉), 한양여관, 송림 마을, 제련소 벽돌 등 다양한 자원이 산재해 있다. 기벌포가 과거 동아시아 패권을 위한 전쟁터에서, 산업화 시대의 성장 담론을 넘어, 이제는 다양한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이 어우러진 평화와 번영의 고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그림 6> 기벌포 해변과 장항 스카이워크

자료: 서천군청

#### 참고 자료

나무백과: 기벌포 전투, 장항읍

위키백과: 기벌포

박재민·성종상·김진욱(2007), 문화,경관: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실태 및 활용가능성 분석-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43-146.

서천군청 홈페이지: 미디어\_서천앨범\_문화관광: 테마1 기벌포 이야기

이상훈(2007),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제90집, pp.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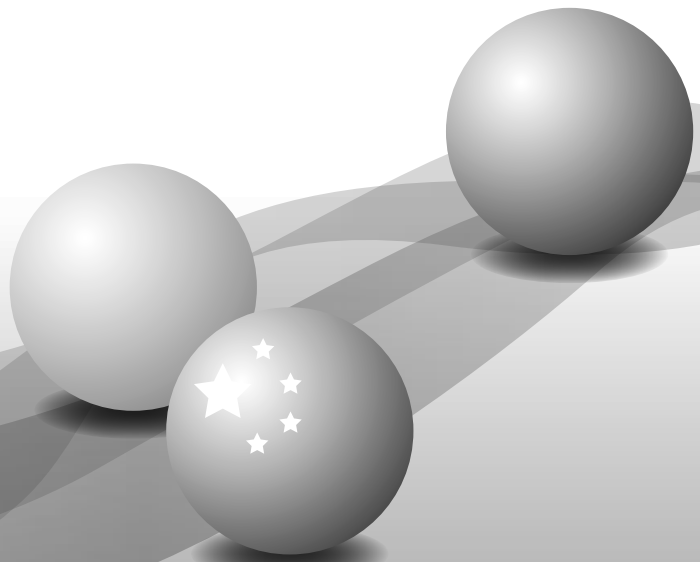
연합뉴스(2018.1.25): 서천군 장항읍에 내년 초 기벌포 문화예술회관 착공

충남일보(2018.2.20): 서천 기벌포영화관, 지역대표 문화공간 자리매김



# 충남연구원 중국교류 현황 및 방향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박경철·송영현



# 1 충남연구원-중국 연구기관 교류 현황

- 2017년 말 기준 그간 우리 연구원 대중국 교류기관은 13개 기관
- 그중 교류 진행 기관은 7개 기관, 연락 유지는 5개 기관, 교류 단절은 1개 기관

<표 1> 충남연구원 대중국 학술교류 현황

교류 기관	교류 일지(장소)	현재 상황	관심 분야
상해시사회과학원	2007. 09. 14(한)	교류 단절	도시발전, 관광
운남성사회과학원	2013. 06. 07(중) 2013. 11. 22(한)	연락 유지	문화, 관광, 농업
광둥공업대학교	2014. 09. 23(중)	연락 유지	도시계획, 건축
광둥백운대학교	2014. 09. 23(중) 2015. 11(한)	교류 진행	디자인
산둥성 연태대학교	2014. 09. 25(중)	연락 유지	도시발전, 해양산업
산둥성 위해시정책연구실	2014. 09. 26(중)	연락 유지	한중협력, 경제
흑룡강성사회과학원	2014. 12. 8(중) 2015. 9. 14-5(한) 2017. 11. 2(한)	교류 진행	농업, 동북아협력
하북성사회과학원	2014. 12. 11(중) 2015. 9. 14-5(한) 2017. 11. 2(한) 2018. 5 예정(중)	교류 진행	환경, 산업, 농업, 관광
상해교통대학	2015. 9.(한) 2015. 10. 21(중) 2016. 4. 26(한) 2017. 12. 5-6(중)	교류 진행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산둥성사회과학원	2015. 10. 22(중) 2017. 11. 2(한)	교류 진행	경제, 농업, 문화
청도시사회과학원	2015. 10. 23(중)	연락 유지	도시계획, 해양산업
귀주성사회과학원	2017. 9. 19(중) 2017. 11. 2(한) 2018. 7 예정(중)	교류 진행	농업, 관광, 문화
중국계림전자기술대학	2017. 12. 11(중)	교류 진행	도시계획, 건축, 관광

## 2 교류협력 일지

### ■ 상해시사회과학원

- 일시: 2007. 09. 14
- 장소: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장
- 교류 내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 연구교류
- 주요 참석자: 김용웅 원장, 최병학 박사, 왕룽화 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단절

### ■ 운남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3. 06. 07
- 장소: 운남성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 주요 참석자: 박진도 원장, 런자 운남성사회과학원 원장 등(\*충남도 안희정 지사 등 도청 관계자 참석)
- 이후 경과 내용: 연락 유지(2013년 11월 행복컨퍼런스에 운남성사회과학원 장지에 연구원 초청 이후 연락 유지 중)

### ■ 광둥공업대학, 광둥백운대학

- 일시: 2014. 09. 23
- 장소: 광둥공업대학, 광둥백운대학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광둥공업대학), 교류의향서 교환(광둥백운대학)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광둥공업대학 주세메이 건축 및 도시계획대학 학장, 백운대학 당서기 등
- 이후 경과 내용: 연락 유지(광둥공업대학), 교류 진행(백운대학, 2015년 11월 심근생 백운대학 부총장 일행 연구원 방문)

### ■ 산둥성 연태대학 동아연구소

- 일시: 2014. 09. 25
- 장소: 연태대학 동아연구소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및 세미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명칭이 동아연구소 소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연락 유지

#### ■ 산동성 위해시 정책연구실

- 일시: 2014. 09. 26
- 장소: 위해시
- 교류 내용: 정책교류 협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왕쉐원 위해시 비서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연락 유지

#### ■ 흑룡강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4. 12. 8
- 장소: 흑룡강성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및 교류회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주위 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표 1, 2 참조)

#### ■ 하북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4. 12. 11
- 장소: 하북성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및 세미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평젠창 부원장, 류웨 부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표 1, 2, 3 참조)

#### ■ 상해교통대학

- 일시: 2015. 9
- 장소: 충남연구원
- 교류 내용: 교류협력 업무 협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상해교통대학 제3섹터연구중심 쉬자량 소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
  - 1) 학술교류 협약 체결
    - ▷ 일시: 2015. 10. 21
    - ▷ 장소: 상해교통대학
    -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상해교통대학 제3섹터연구중심 쉬자량 소장 등
  - 2)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 세미나 개최
    - ▷ 일시: 2016. 4. 26
    - ▷ 장소: 충남연구원

-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상해교통대학 제3섹터연구중심 쉬자량 소장 등
- 3) 한중 사회적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개최
  - ▷ 일시: 2017. 12. 5-6
  - ▷ 장소: 상해교통대학 중국공익발전연구원
  - ▷ 주요 참석자: 송두범 단장, 쉬자량 원장 등

#### ■ 산둥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5. 10. 22
- 장소: 산둥성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산둥성사회과학원 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표 2 참조)

#### ■ 청도시사회과학원

- 일시: 2015. 10. 23
- 장소: 청도시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청도시사회과학원 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연락 유지

#### ■ 귀주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7. 9. 19
- 장소: 귀주성사회과학원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및 세미나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우다화 원장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자세한 사항은 하단 별표 2, 4 참조)

#### ■ 중국계림전자기술대학

- 일시: 2017. 12. 11-2(11일 MOU체결)
- 장소: 중국계림전자기술대학
- 교류 내용: 학술교류 협약 체결
- 주요 참석자: 권영현 실장, 임준홍 부장, 이문용 과장(국제교류학과) 등
- 이후 경과 내용: 교류 진행(향후 중국 측에서 마을 과소화 문제 관련 세미나에 충남연구원 연구자 초청할 예정)

**별표1. 학술교류 협약 체결 및 학술포럼,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실시(충남연구원, 하북성사회과학원, 흑룡강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5. 9. 14-5

▷ 장소: 충남연구원, 충남도청 문예회관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주위 원장(흑룡강성사과원), 평젠창 부원장(하북성사과원) 등

**별표2. 제3회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지방정부 싱크탱크 라운드 참석(충남연구원, 하북성사회과학원, 산둥성사회과학원, 흑룡강성사회과학원, 귀주성사회과학원)**

▷ 일시: 2017. 11. 2

▷ 장소: 공주시

▷ 주요 참석자: 강현수 원장, 평젠창 부원장(하북성사회과학원), 왕싱귀 부원장(산둥성사회과학원), 따즈강 소장(흑룡강성사회과학원), 거우이용 소장(귀주성사회과학원) 등

**별표3. 제3회 하북성사회과학원 싱크탱크 포럼 “개혁개방과 고품질 발전” 참석 예정**

▷ 일시: 2018. 5.

▷ 장소: 하북성사회과학원

▷ 우리 측 주요참석자: 김양중 부장, 홍원표 팀장

**별표4. 제3회 귀주성사회과학원 주최 “생태문명과 반빈곤 포럼” 참석 예정**

▷ 일시: 2018. 7.

▷ 장소: 귀주성사회과학원

▷ 우리 측 주요참석자: 충남연구원 정옥식 부장, 박경철, 강마야 박사

### 3 교류·협력 기관의 유형 및 충남연구원 담당 부서

#### ● 중점 교류 기관: 하북성사회과학원, 산둥성사회과학원

- 하북성은 충남도와 가장 오래된 교류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내 입지와 역할이 충남도와 유사점이 많으므로 이 지역 싱크탱크인 하북성사회과학원과 향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 필요
-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항, 한-중 해저터널 건설 논의 확대에 따라 해당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산둥성사회과학원과 내실화된 교류·협력 필요

- **일반 교류 기관: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운남성사회과학원, 귀주성사회과학원**
  - 충남연구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나 아직 깊이 있는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향후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교류 협력 필요
  - 이들 기관과는 연구·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연구·학술 교류의 원활화·지속화를 위한 인적 교류 추진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화 교류 기관: 광동공업대학교, 산동연태대학교, 산동성 위해시 정책연구실, 상해교통대학, 청도시사회과학원, 중국계림전자기술대학**
  - 대학 및 시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도시계획, 사회적경제 등 특화 분야 교류 협력 추진 필요
  - 특히 대학기관에는 단기 어학연수 및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파견도 필요

<표 2> 대(對)중국 교류기관 유형 및 충남연구원 담당부서

교류기관		향후 중점 교류 분야	담당 부서
중점 교류기관	하북성사회과학원	도시계획, 환경, 산업 등 전 분야	기획실, 미래전략연구단, 산업경제연구부, 행정복지연구부
	산동성사회과학원	경제, 산업, 농업, 관광, 해양	산업경제연구부, 농촌농업연구부,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해양수산팀
일반 교류기관	흑룡강성사회과학원	농업, 동북아협력	농촌농업연구부, 행정복지연구부
	운남성사회과학원	문화, 관광, 자연, 생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생태환경연구부
	귀주성사회과학원	농업, 생태환경	농촌농업연구부, 환경생태연구부
특화 교류기관	광동공업대학교	도시계획, 건축	미래전략연구단, 지역도시연구부
	산동성 연태대학교	해양산업, 농업, 단기연수	농촌농업연구부, 해양수산팀
	산동성 위해시정책연구실	해양산업, 농업, 지역개발	농촌농업연구부, 해양수산팀
	상해교통대학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청도시사회과학원	도시계획, 해양산업	미래전략연구단, 해양수산팀
	중국계림전자기술대학	도시계획, 건축, 관광	지역도시연구부

#### 4 교류·협력기관 방문 원칙

- 정기 교류: 연구원 대표단에 의한 상호 방문
  - 원장, 연구실장 등을 중심으로 방문 인원 및 교류 내용 결정
  - 방문단 선정은 방문 기관의 성격에 부합한 연구 분야 연구자 우선 선정
  - 연구원 구성원에게 최대한 공평한 교류 기회 제공
- 초청에 의한 방문: 포럼, 컨퍼런스 등 각종 회의
  - 발표 요청 분야를 고려해 해당 부서 연구자 우선 파견
  - 가급적 자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원장, 실장, 부장 등 원내 협의를 통해 추천자 우선 파견
  - 교류·협력 차원에서 통역 및 관련 분야 연구자 동반 파견 가능
  - 연구원 구성원에게 최대한 공평한 교류 기회 제공

#### 5 향후 주요 교류·협력 이슈와 방향

-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 충남도와 각 시군이 교류하고 있는 중국 성·시들의 주요 현안문제 파악 및 정책 과제 공유
  - “연구 및 정책외교”를 통해 지방 공공외교의 주요 주체로서 충남연구원의 위상 강화
  - 향후 보다 심화된 형태의 연구 및 정책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한 연구와 정책을 데이터베이스화
- 지역의 미래비전 및 전략
  - 충남과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환황해권에 입지하여 충남과 공존·공영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중국 각 지역 연구기관들과 함께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이슈를 선정·논의하는 장 마련
  - 각 지역 미래발전에 대한 이슈뿐 아니라 환황해권 전반의 미래비전을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논의
- 공동연구 과제선정 및 추진
  - 중국 주요지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현안 및 미래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 진행
  - 연구기관별 강점분야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활용가능성 높은 연구과제 발굴·추진
  - 환황해권역에 속하는 국내 타 시·도 출연연구기관의 중국 연구자들과 연구 교류 및 공동 의제 발굴. 이를 통해 국가 정책화 방안 모색



「충청중국포럼 소식」

# 제28·29회 충청중국포럼

## 제28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1)

- 지난 2월 28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국민대학교 박철현교수가 “두 중국의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1)”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도 미래정책과 신현배 한화해팀장, 이정아 주무관, 도 기업통상교류과의 최성민 중화권팀장 외 충남의 각 시군별 대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림 1> 단체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무역 도시 상해가 탈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 상해시의 경우 개혁개방기 이전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던 푸둥신구(浦東新區)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강연이 이뤄졌다. 푸둥신구 개발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국제화 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
  - 상해시는 개혁개방기 이후에도 장강삼각주 내 기타 도시들에 비해 개발이 10년 정도 뒤쳐진 지역이었으며 본격적인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 1990년대부터 국유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교통, 항만,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 예를 들어 1999년에는 1기 푸둥신공항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항만, 지하철, 신공항과의 연계도로 개설이 이뤄졌다.
- 2005년 종합총괄개혁시험구(綜合配套改革試驗區) 지정,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푸둥신구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 한편, 1990년 중국국무원이 푸둥지구 개발을 선포함과 동시에 신구 내 루자주이(陆家嘴)지역에 최초의 국가급 금융개발구가 설립되었다.

- 1986년 상해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이 「루자주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1994년에는 해외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루자주이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 1988년부터 중국정부가 이 지역의 토지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자원을 활용한 경제성장이 합법화되었다.
- 이러한 정책조치에 힘입어 국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수출입무역회사 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대거 투입 되었으며 외국자본 역시 투입되기 시작했다.
- 또한 상해시 정부는 루자주이 집단공사(集團公司)라는 국유기업을 창설하였으며 이 기업은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부동산 인허가, 개발기획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평론이 있었다.

- 서산시 관계자는 대산항과 산둥성 룡청항(龍城)간 국제여객선 운영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농산물 등 국산제품의 중국수출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중국도시들의 거시적인 발전 외에도 개별 중국 도시들의 세부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된 중국의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발음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제29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2)

- 지난 3월 28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국민대학교 박철현교수가 “두 중국의 도시 이야기: 상해와 심양(2)”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도 미래정책과 신현배 한황해팀장, 이정아 주무관, 도 기업통상교류과의 최성민 중화권팀장 외 충남의 각 시군별 대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림 1> 박철현교수 강연 모습

-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삼성의 중공업도시 심양이 탈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 도시개발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농이원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문화대혁명기, 자원부족과 공급곤란으로 분리된 호구제도를 근거로 도시민과 농민을 분리하는 체제와 구도가 만들어졌다.
  - 개혁기에 경제 및 사회체제는 변화했으나, 호구제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개혁이 이뤄졌다.
- 심양은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중공업도시였으며 도시 내 철서구 개발을 통해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 철서구는 타 지역에 비해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유기업 비중이 컸으며 이는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주 원인이었다.

- 2002년 동북진흥정책 실시 직전의 철서구는 “하강(下崗: 실업)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국유 기업의 파산과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정점에 달한다.
- 당시 심양은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과제였다.
- 이 시기에 철서구와 심양경제기술개발구는 공간생산전략으로 합서판공(合署辦公: 두 기구의 인원과 자원을 상급기관이 융통성 있게 지휘하는 것)과 동반서건(東搬西建: 동쪽지역 기업을 서쪽으로 옮겨 짓는다)을 통해 철서신구(鐵西新區)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권 제도개혁 등을 통해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 철서신구는 시급관리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2008년 “철서구산업발전계획”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철서신구개발사업은 국가급 전략사업으로 승급하게 된다.

● 최근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신동북현상(GDP급감, 인구감소, 낮은 출산율)의 해결책으로 동북진흥정책이 제시되었다.

- 동북진흥정책의 핵심은 스마트도시의 건설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를 창설해서 총체적인 기획을 마련하고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시정부 산하에 빅데이터 관리국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시범구로 훈난신구(渾南新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 보령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상해 청포구를 공식방문 하였다고 말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을 넘어 깊이 있는 대중국 경제교류가 필요하다 언급하였다.
- 그러나 실무차원에서 볼 때 구체화된 경제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당진시 관계자는 산둥성 일조시와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양 도시간 자매결연도 체결했으나 현재의 중국정치체제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 박철현 교수는 “중국이라는 거대국과 교류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큰 나라이기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하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된 중국의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발음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8.4)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